

Top-down Sedation (대학병원의안전과 개원가의 효율까지)

유 승 화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최근 치과진정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많은 임상 의들이 이를 실제 치과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진정법은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치과진정법은 별도의 학습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 이기에,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많은 임상 의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진정법을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과진정법의 핵심은 적응증에 맞는 환자 선택과 철저한 환자평가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ASA 분류를 통해 치과진료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환자가 치과진정법에도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적응증 선택의 중요한 요소는 치료의 침습 정도와 통증 유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과불안 감수성(dental anxiety susceptibility)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금식(Fasting), 모니터링과 같은 가이드라인 역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와 프로토콜은 대학병원과 개원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환경에 최적화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진정약물들의 장단점과 실제 임상 프로토콜의 차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는 모든 환경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제한된 인력 구조 속에서 효과적인 팀 접근법(team approach)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학병원의 최신 연구 및 임상 워크플로우를 소개하고, 이를 개원가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연자의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 순천향대학교 의학대학원 의학박사
-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 현, 서울대학교 치과마취과 진료교수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총무이사
BLS, KBLS, ACLS, DALS instructo